

국제화시대의 국내 공학교육전략

정보화의 발달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국가간 산업인력의 상호인정에 의한 자유이동성 보장”을 포함하는 WTO, FTA 협정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간 산업인력의 상호인정을 위해 기술 인력의 대학 학부교육, 전문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상호 등가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Washington Accord(WA), Sydney Accord(SA), Dublin Accord(DA) 등으로 보장하고, 국가간 공인된 기술자의 자격은 APEC Engineer, Engineers Mobility Forum(EMF), Engineering Technologist Mobility Forum(EMTF)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이들의 상호관련 메카니즘은 다자간 협약들의 결합체로 구성된 IEM(International Engineer Meetings)에서 기술자 관련 국제 협약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를 통해 교육시장 개방 논의를 시작하는 등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대응 활동이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시장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각국에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을 WTO 협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여러 모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또한 미국공학교육학회(ASEE)와 국제협력관계를 체결하는 등 역동적인 활동과 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 본호 특집기사 및 토론회 주제로 국제화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특집기사로 과기부, 교육부, 건교부등 유관 부서와 국내 공학교육인증기관 및 산업계의 “국제화시대의 국내 공학교육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은 소 주제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1) Washington Accord와 공학인증제
- (2)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국제화사업
- (3) 공학교육분야 대외개방 이슈
- (4) 건축·토목공학분야 국제화를 위한 대응전략
- (5) 해외진출기업의 이슈

다음으로는 “엔지니어의 국제 진출과 공학교육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중앙속기사무소 산자부, 과기부, 기업체, 한국기술사회및 학계에서 참가하여 갖은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창립10주년 기념 특집좌담회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국제화시대의 국내공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엔지니어의 국제 진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원고 집필진 및 좌담회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손 소 영
공학교육기술학회 학술이사
연세대학교
컴퓨터산업공학부교수
sohns@yonsei.ac.kr